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결
경제관계장관회의
26-21-2
(공개)

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

2026. 7. 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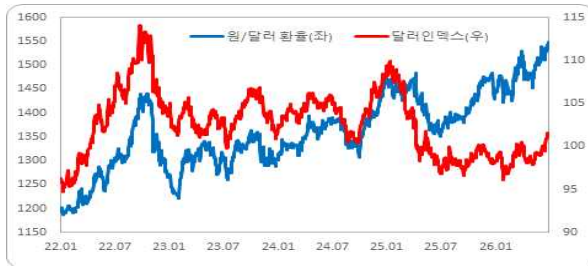
I . 추진 배경	1
II .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	2
1. 긴급경영자금 지원	2
2.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	4
3. 세제 · 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	5
III . 추진계획	6

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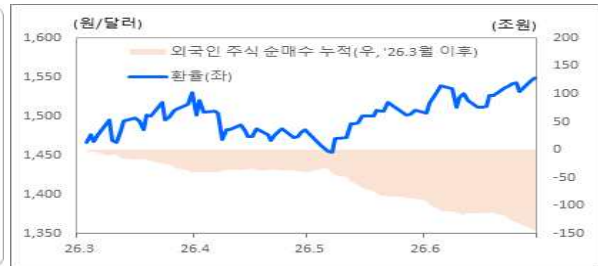
- **(환율 동향)** 원/달러 환율은 美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,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상승

* 원/달러환율(원기말): ('23)1,288.0 ('24)1,472.5 ('25)1,439.0 ('26.1Q)1,530.1 ('26.5)1,507.9 ('6)1,549.4

원/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



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원/달러 환율



- **(중소기업 애로 현황)** 높은 수준의 환율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中企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, 특히 수입 中企의 부담이 큰 편**

* 중기중앙회, 고환율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('26.6.8~', 59개사 응답)

** 응답 중소기업의 62.7%가 고환율 피해 수준을 '심각' 또는 '매우 심각'으로 응답 (특히, 수입 중소기업은 전체(11개사)가 '심각 이상'으로 응답)

- **(수입기업)**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마진을 저하 등 부담 발생(응답기업의 71.2%가 원부자재 수입비 증가를 애로요인으로 답변)
- **(수출기업)** 환율 상승이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요인이나, 원부자재·중간재 수입·가공 수출기업 등에는 비용부담 요인*
 - * 한은(25.6월), "환율 상승 시 가격경쟁력·외화환산이익 등 매출 증가 요인보다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더 커 기업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"
- **(정부지원)**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긴급경영자금 확대(42.4%), 수출바우처 확대(39.0%), 환헤지 지원(18.6%) 등을 요청

⇒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·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 마련

-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既 마련한 정책금융(23.7조원) 잔여 여력(13.8조원)을 고환율로 인한 경영애로 中企에 집중 지원
 -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(1.1조원)도 추가 공급하고, 환변동보험 및 세제·세정 등 전방위 지원

II.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

- ◆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*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·세제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고,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
 - *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% 이상 중소기업 등

1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14.9조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

- (긴급경영자금*)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·중견기업에 14.9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금융위·재경부·중기부

* 중동상황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23.7조원 중 잔여 여력(13.8조원)을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 + 신규자금 1.1조원 추가 공급

-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금융위

- ① (중진공)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(+1,000억원 내외 검토) **중기부

*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: (現)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 필요 → (改) 고환율 등 경영애로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% 이상 등의 경우 매출액·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

**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(중진공): 2,500 → 5,000억원(추경)

- ② (수은) 고환율·통상환경 변화 등 중소기업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(+1조원)* 및 금리우대 강화 **재경부

* (지원규모) 7→8조원(+1조원) ** (금리우대폭) 최대△2.0%p → 최대△2.2%p

-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「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」 신설(0.3조원)

*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내 신설,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

- ③ (산은·기은)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위한 중소·중견 지원자금(산은, 금리우대 △0.6%p) 적기 공급

-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(기은, 금리우대 △1.3%p) 신속 지원

④ (기보)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中企 대상 긴급경영안정 보증* 보증비율을 상향하고, 보증료를 감면 확대 중기부

* (現) 보증비율 95% 보증료를 △0.3%p 감면 → (改) 보증비율 100% 보증료를 △0.4%p 감면
(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례보증 우대수준과 동일하게 확대)

○ **(만기연장·상환유예)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* 대상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·만기연장** 중기부·금융위·재경부

* '26년內 원금상환 도래(예정) + 원부자재 등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% 이상 중소기업(중진공)
(중진공 外 정책금융기관은 '26.3Q 만기도래 대출(필요시 기간 연장)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수입 실적 보유한 기업 중 매출액·영업이익 등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이 대상)

<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>

기관	프로그램명	지원대상	금리/조건 우대	규모
중진공	긴급경영안정자금	중소	정책자금 기준금리 +0.5%p	0.3조원
수은	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	중소·중견	금리우대 최대 △2.2%p	4.0조원
산은	중소·중견 지원자금	중소·중견	금리우대 최대 △0.6%p	5.3조원
	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	수출 중소·중견	금리우대 최대 △0.7%p	2.2조원
기은	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 대출	중소기업	금리우대 최대 △1.3%p	0.2조원
	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		금리우대 최대 △1.0%p	0.5조원
	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별자금지원		금리우대 최대 △1.3%p	0.3조원
	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		금리우대 최대 △1.3%p	0.1조원
	공급망 결제성여신지원 프로그램		금리우대 최대 △1.3%p	0.4조원
신보	위기대응 특례보증	중소·중견	보증료를 △0.5%p	1.5조원
기보	긴급경영안정보증	중소	<u>보증비율 100% 보증료를△0.4%p</u>	0.1조원
계				14.9조원

*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 지원 여력 등을 활용(6.22일 기준)

②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

- **(무역보험·보증)** 역대 최고수준인 275조원 무역보험 공급을 통해 고환을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(수입보험 등) 우대지원 강화^{산업부}
 -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·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, 중소·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% 할인(~27.4월)^{산업부}
 - * (現)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가입 → (改)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
 -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·중견기업에 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(0.3조원, ~27.4월)^{산업부}
 - 고환을 등에 따라 해외 현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법인 대상 무보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(0.2조원, ~27.4월)^{산업부}
 - * 현지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시 무보가 장기 보증(최대5년) (기업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年매출의 최대 30%까지 보증,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시 50%까지 보증)
- **(환변동보험)**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(무보) 지원을 확대(26년 1.2→1.3조원)하고, 중소 보험료 할인 확대(15→30%, ~27.4월)^{산업부}
 -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소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,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익금의 분할납부(일시불→18개월)로 기업부담 완화^{산업부}
 - * (現) 일부 원자재만 가능 → (改) 사치재 제외, 소품목 가능
- **(수출바우처)** 수출바우처 내 고환을 등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집중 지원(100억원, '26.7월)^{산업부·중기부}
 - * (現) 수출바우처 통해 관세 및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(산업부 639억원, 중기부 1,937억원) → (改) 고환을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또는 한도 추가(산업부 40억원, 중기부 60억원)
 - 환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한시 확대(1,000→2,000만원) 및 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^{산업부·중기부}
 - * (現) 수출바우처 사업기간 내 보험계약 미종료시 지원 불가(보험계약 종료후 정산지급) → (改) 보험료 선금 지원으로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부담 완화
- **(통화전환 옵션)**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대출통화 전환권^{*}(통화전환 옵션) 부여^{재경부}
 - * 대출기간 중 대출통화를 '외화 ↔ 원화', '외화 ↔ 여타 외화'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
 - 수입기업이 수은의 수입자금 대출시 환율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소요자금 대출 확대(3~6개월분까지 대출 가능)^{재경부}
 - * (現) 기존 수입에 필요한 향후 3개월 소요자금에 대해서만 대출 집행 가능
(改) 향후 6개월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 집행 가능

③ **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제·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 강화**

- **(세제·세정)**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·부가·소득·관세 납부기한 연장^{국세청·관세청}
 -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 內 생산품 과세신청 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허용^{재경부·관세청}
 - * (現) 원료 사용 전 신청 → (改)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 신청 가능
- **(상생협력)**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·단체에 컨설팅 지원+우수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^{중기부}
 -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시,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지원 실적 반영^{중기부금융위}
- **(조달)**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공계약금액 조정 필요시, 조정제한기간(90일) 이내*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개선
 - * 원적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(조정제한기간) 이상 경과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
→ 예외천재지변·원자재의 가격급등 시 조정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
- **(컨설팅)** 中企 대상 환리스크 교육·컨설팅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(중기부·지재처·관세청 등) 설명회 개최^{중기부}
 - **(수은)** 고환율 대응을 위한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* 제공을 확대(100→150억원)하고, 컨설팅 제공 대상도 확대^{**재경부}
 - * 통상리스크 대응, ESG 규제 대응, 해외시장 개척, 환변동 리스크 컨설팅 지원 등
 - ** (現) 수은 고객기업 → (改) 상생대기업이 추천한 협력기업까지 확대
 -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, 中企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^{중기부}

Ⅲ. 추진계획

정 책 과 제	추진 시기	담당 부처
---------	-------	-------

1. 긴급경영자금

▶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고환율 경영애로 中企 전용트랙 신설	즉시	중기부
▶ 수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	'26.7월	재경부
▶ 수은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	'26.7월	재경부
▶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 상향·보증료율 감면 확대	즉시	중기부
▶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·만기연장	'26.7월	재경부 중기부 금융위

2.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

▶ 수입보험 가입요건 개선	즉시	산업부
▶ 중소·중견기업 수입보험료 50% 할인	즉시	산업부
▶ 무보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 최대 2배 우대	즉시	산업부
▶ 中企 환변동보험료 할인 확대(15→30%)	'26.7월	산업부
▶ 수출바우처 내 고환율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전용트랙 신설 등	'26.7월	산업부 중기부
▶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한도 한시 확대(1,000→2,000만원)	즉시	산업부 중기부
▶ 무역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	즉시	산업부 중기부
▶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中企 대상 통화전환옵션 부여	즉시	재경부

3. 중소기업 세제·세정 및 상생협력 등 지원 강화

▶ 법인·부가·소득·관세 납부기한 연장(신청시)	즉시	국세청 관세청
▶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에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자원 실적 반영	'26.4분기	중기부 금융위
▶ 수은의 비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	즉시	재경부